통일화보

우리민족끼리

주체111(2022)년
(9 — 10월)
5호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쳐가시는 백전백승의 천출명장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안은 남조선의 종교인

통일화보 주체111(2022)년 5호 (9－10월)

불멸의 업적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위인 4

절세의 위인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26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쳐가시는 백전백승의 천출명장 38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60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64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72

소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뜻깊게 경축 76

조국강산에 차넘치는 온 나라 인민의 긍지와 환희 8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 진행 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전원회의 진행 85

공화국의 현실

우리 인민의 존엄이고 영광인 람홍색공화국기 86

온 나라에 나래치는 자력갱생정신, 계속혁신의 기상 90

성황리에 진행된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98

꿈과 희망을 꽃피워주는 아이들의 궁전 100

힘과 지혜의 겨루기 전국민족씨름경기 104

단풍계절에 평양골프장을 누비다 106

락랑지구에 새로 건설된 락랑박물관 108

인물소개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안은 남조선의 종교인 110

박사학위를 받은 녀성로동자 112

소녀우표수집가 114

남조선의 민심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침략전쟁연습 중단하라!》 116

표지: 평양의 유서깊은 만수대기슭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뒤표지: 금강산의 소나무

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며
더 높이 휘날려가리라 우리의 국기를!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진데 대하여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주체110(2021)년 1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우리 당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입니다.

김 정 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10월

자기의것이 제일이고 자력갱생이 제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모두를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 제힘으로 일떠설줄 아는 신념이 강한 불굴의 투사들로 키워주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정신으로 짧은 기간에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

우리의 힘과 기술로 날바다우에 일떠세운 고암-답촌철길

자력갱생로선의 생활력을 과시하는 어랑천발전소의 팔향언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독창적인 건설사상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건설혁명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온 나라의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불과 1년사이에 인민의 리상거리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송화거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10월

로동당시대의 문명과 부흥을 상징하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된 삼지연시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7(2018)년 1월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과학기술전당의 야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출중한 실력과 해박한 식견으로 주체과학기술의 방향과 목표를 환히 밝혀주시고 온 나라에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 땅에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쳐가고있는 평양교원대학 학생들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7(2018)년 8월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일념 안고 생산투쟁을 벌리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계급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경공업공장들에서는 명제품, 명상품생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도처에 일떠선 온실농장, 버섯공장, 양어장들마다에는 흐뭇한 광경이 펼쳐져 인민들에게 기쁨과 더 좋은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 중평온실농장

우리 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원산구두공장

대륙간탄도미싸일《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3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 무비의 담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불가항력의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시고 부국강병의 대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인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심혈과 로고가 있어 공화국은 그 누구도 영원히 건드릴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로 그 위용 만방에 떨치고있다.

공화국이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전망을 보여주는 첨단무장장비들

주체조선의 절대적힘,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대륙간탄도미싸일《화성포-17》형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더욱 빛내여갈 불같은 일념이 세차게 분출되고있는 **김일성**광장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나라의 전반적인 재해방지실태를 점검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가 9월 4일과 5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의 번영발전과 인민들의 생명수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하는 중대혁명과업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위기대응능력건설방향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리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인민의 생명안전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국가의 재해방지능력을 최단기간내에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실행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회의에서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자료보고를 제기하였으며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는 나라의 백년지계를 도모하기 위한 재해방지투쟁에 떨쳐나선 전당, 전국, 전민을 다시한번 각성분발시키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가 9월 7일과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1일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둘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와 토론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2일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자들은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상승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적과업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진지하게 청취하였으며 무한한 격정과 흥분에 넘쳐 열렬한 박수로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셋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법령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는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데서 중대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을 향한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킨 력사적인 회의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며 우리모두가 분발하고 또 분발할수록 그 승리는 더 빨리 앞당겨질것입니다.

모두다 한마음한뜻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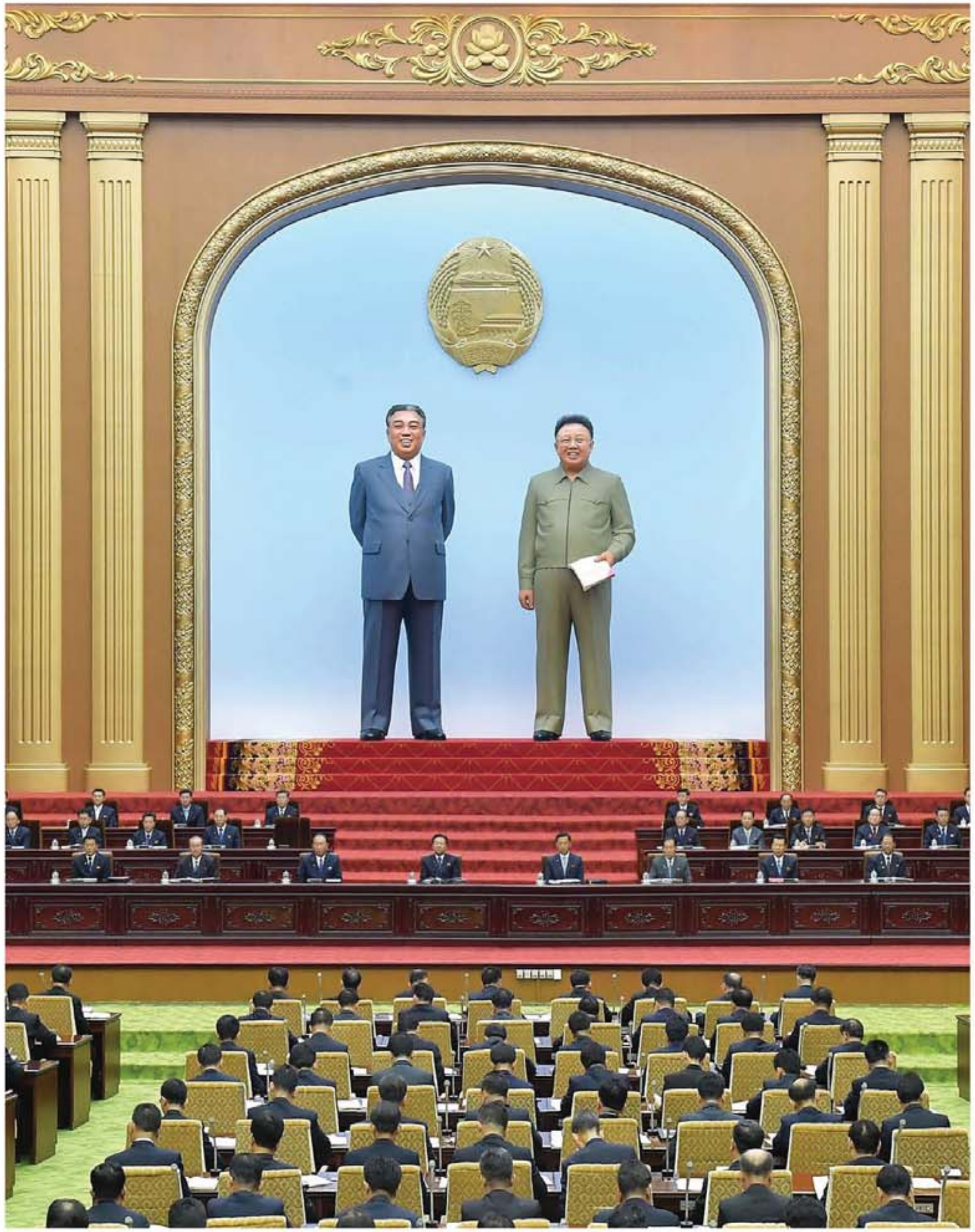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김 정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축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핵무력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2. 핵무력의 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된다.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3)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5. 핵무기의 사용원칙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핵무기의 사용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7.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보관관리, 수명과 성능평가, 갱신 및 폐기의 모든 공정들이 해당기술적규정과 법적절차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하고 안전한 핵무기보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그 리행을 담보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핵물질 등이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운다.

9.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와 갱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10. 전파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

11. 기 타

1) 2013년 4월 1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2)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주체111(2022)년 9월 8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이 숭엄히 모셔져있는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 만수대기슭에서 9월 8일 밤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축행사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경축행사장에 나오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와 리설주녀사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공화국창건일을 맞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사당의 기발게양대에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되고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영원불패의 위력을 떨쳐가는 공화국정권의 위상을 비껴안고 수도의 한복판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거연한 만수대의사당을 배경으로 대공연이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상떨치는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불가항력을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서사시로 펼쳐보인 공연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진군가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와 《우리의 국기》로 끝났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연성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몸소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을 축하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장식한 성대한 경축행사는 성스러운 조국의 력사가 새겨주는 백전백승의 진리를 피끓는 심장에 간직하고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세계가 보란듯이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신심드높이 펼쳐나갈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의지를 과시한 의의깊은 정치축전으로 청사에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축행사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남다른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공화국창건 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간직하고 견인불발의 노력을 경주하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수호의 전위, 새로운 혁신의 창조자로 핵심적, 선구자적역할을 다하고있는 애국적인 근로자들의 고결한 인생관과 공적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존경하는 리설주녀사를 모시고 만수대의사당 정원에서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 안겨 한식솔의 정을 나누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진 연회장에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의 기쁨이 차넘쳤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건강과 사업성과를 헤아려주시며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국가의 강대함은 위대한 인민의 진함없는 애국의 열정과 피타는 노력과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창조물과 사업성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조국과 인민이 긍지높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시대의 선구자로 영예로운 삶을 빛내여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부문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9일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부문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 정력적인 령도로 세계보건사에 전무후무한 방역대승을 안아오시고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우월성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우리 인민모두의 삶과 행복의 전부이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을 받드는 충성의 열정과 강인한 정신력, 인민에 대한 뜨거운 정성으로 최악의 보건사태를 성과적으로 제압하고 방역안정을 쟁취하는데 공헌한 당의 붉은 방역전사, 보건전사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이 방역능력이자 국가의 안전보장능력이며 인민의 생명수호능력임을 항상 자각하고 방역대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공고화하면서 그 어떤 보건위기에도 주도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역능력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발전과 온 나라 가정의 안녕을 굳건히 담보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쳐가시는 백전백승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였다.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해군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한 련합군의 대규모해상전력이 조선반도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만큼 타격소멸할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효과성, 실전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적들의 분주한 군사적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정권》의 이러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무책임한 정세격화행동은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뿐이라고, 우리는 정세위기를 항시적으로 엄격히 주시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들이 군사적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선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써 방대한 무력을 때없이 끌어들여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간과할수 없는 적들의 군사적움직임을 빠짐없이 예리하게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상응한 모든 군사적대응조치를 강력히 실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투무력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반도정세의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여 적들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사훈련들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 10월 6일과 8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사훈련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더운 포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전투력강화의 나날들에 부단히 련마해온 우수한 실전능력과 우리 군대특유의 기질적인 용감성과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불의적인 실전상황에도 능동적으로 정확히 대처할수 있게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국가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있는 군사정세상황을 놓고볼 때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전쟁준비태세와 군사적대응능력강화는 우리 혁명앞에 필수불가결의 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이 언제나 격동상태에서 더욱 확고한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주적관, 주체적인 전쟁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의 최전방과 우리의 자주권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철통같이 지켜나갈것을 호소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에 참가하여 혁혁한 군공을 세운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0월 9일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에 참가하여 혁명적당군의 필승의 기개를 만천하에 떨치고 당중앙의 권위를 사수한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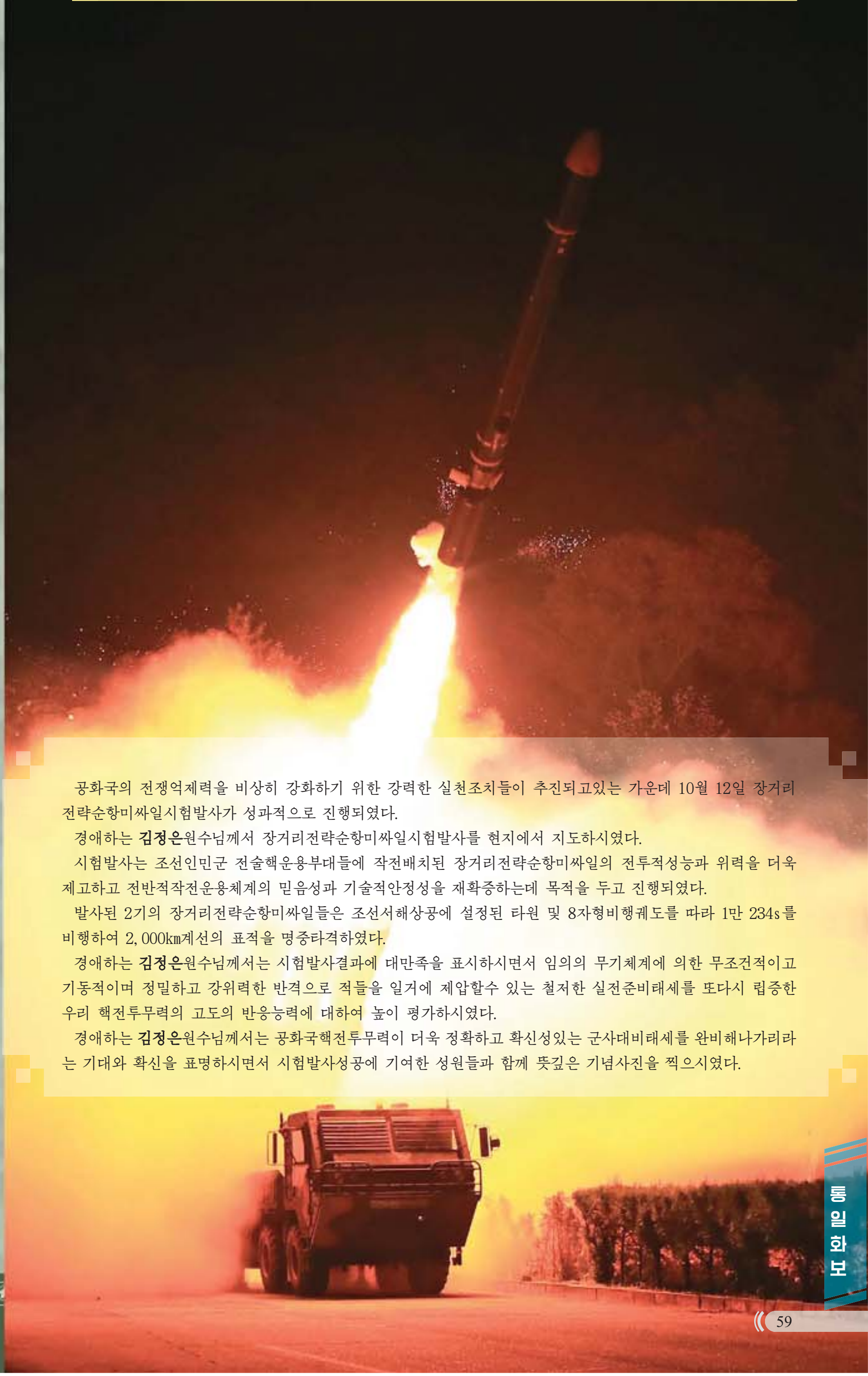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전투비행사들은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강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국위를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쳐가시는 백전백승의 천출명장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당중앙의 명령일하에 일제히 총출격하여 무적의 용맹을 떨친 전투비행사들의 혁혁한 군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령공을 진감한 용맹한 비행대들의 멸적의 폭음은 조국수호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여 당과 혁명을 철벽으로 보위해가는 조선인민군 공군의 전투력의 일대 과시로 조국청사에 기록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승리와 영광의 년륜을 새기며 충성의 항로를 변함없이 날아온 우리 공군특유의 훌륭한 전투정신, 투쟁기질을 더 높이 발휘하여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한생의 영광으로 간직하고 결전의 그날이 오면 백두의 폭풍처럼 거세차게, 백두의 번개같이 단숨에 적의 아성으로 제일먼저 돌입하여 위대한 **김정은**조선의 장쾌한 승전폭음을 울릴 충천한 의지를 담아 충성의 구호들을 힘있게 웨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조치들이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10월 12일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시험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의 전투적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안정성을 재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들은 조선서해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따라 1만 234s를 비행하여 2,000km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시험발사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임의의 무기체계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기동적이며 정밀하고 강위력한 반격으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수 있는 철저한 실전준비태세를 또다시 립증한 우리 핵전투무력의 고도의 반응능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화국핵전투무력이 더욱 정확하고 확신성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련포온실농장건설이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되였다.

대규모남새생산기지인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이 10월 10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의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여 무연하던 벌판에 희한한 온실바다를 펼쳐놓은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건설자들과 군중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련포온실농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가없이 펼쳐진 온실바다를 부감하시면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 수고가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련포지구에서 공산주의농촌마을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련포온실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련포전역에서 무한한 충실성과 결사관철의 헌신적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올해 당과 국가의 최중대건설정책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벽하게 수행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주체111(2022)
10월

13
12

10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가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창립일을 맞이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을 기념하는 혁명학원 학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변심없이 받들고 따르며 주체혁명위업을 결사옹위해갈 원아들의 충성의 열정과 기백이 용솟음치는 담찬 모습에 기쁨과 만족을 금치 못하시며 손을 높이 드시여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이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고 백두의 넋을 지니며 성장하는 조선로동당의 참된 아들딸답게 혁명가유자녀의 근본을 언제나 잊지 않고 당의 위업수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여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10월 16일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여 원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그날 시간이 바빠 학원을 다 돌아보지 못하였는데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천금같은 시간을 내여 찾아오신 자애로운 아버지원수님을 맞이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학원의 교정에 차넘치고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교육조종실, 저격무기강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원의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격술 및 수영훈련을 보아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졸업반학생들의 권총실탄사격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바치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식당에 들리시여 원아들의 식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의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인 혁명학원의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고 학원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학원을 떠나시기에 앞서 학원의 책임일군들에게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고 우리 당의 아들들인 원아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 또다시 새기신 사랑의 자욱은 위대한 사상과 정신의 빛나는 계승을 우리 당과 조국의 만년대계, 혁명의 최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혁명가유자녀들을 당의 핵심골간, 우리 국가의 대들보로 훌륭히 키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는 절세위인의 불같은 정의 세계를 전하는 혁명전설로 청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절세의 위인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0월 17일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인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여 우리당 강화발전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오매에도 그리며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시원이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로 되는 《ㅌ. ㄷ》가 결성된 뜻깊은 날에 교정에 모시는 꿈만 같은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중견간부양성의 원종장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여온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당간부대렬의 장성강화에 적극 공헌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당중앙과 뜻과 의지, 실천을 같이하며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의 성스러운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더욱 견결하게 분투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교내에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교육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앙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새시대 우리 당건설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력사적인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기념강의를 마치시자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우리 식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접하게 된 무한한 감격에 넘쳐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 새기신 거룩한 령도의 자욱은 새시대 당건설의 휘황한 진로를 밝히고 우리당 핵심골간육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의 표대를 세움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만반으로 다지고 우리 당을 혁명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정예화된 강철의 전위대오,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인 행보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뜻깊게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강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공화국의 성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강국의 공민된 크나큰 자긍심이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졌다.

각지에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수도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경축 대공연이 련일 성황리에 펼쳐지는 가운데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와 대형요술 및 교예공연이 진행되였다.

경사로운 9월명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각지의 문화휴식터들에서는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다채로운 체육경기가 진행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한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인민들에게 혁명적열정과 투쟁의 활력을 북돋아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경축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고귀한 투쟁으로 지켜내고 떨쳐온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매진해갈 애국열의에 넘쳐있었다.

글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22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웅변대회

경사로운 9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농업근로자들

국립교예단의 특색있는 대형요술 및 교예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여 명절의 환희를 더해주었다.

| 소 식 |

조국강산에 차넘치는 온 나라 인민의 긍지와 환희

—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경축하여 —

조선로동당창건 77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른 각계층 근로자들

공화국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경모의 대하가 굽이치고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각계층 근로자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수도 평양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여 혁명적 당건설사에 처음으로 어머니당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지닌 우리 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천만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신화, 기적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드높은 결의가 황해남도, 개성시 등에서 진행된 웅변모임, 경축모임들에서 울려나왔다.

각지에서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가 펼쳐져 명절의 환희를 더해주는 가운데 **김일성**경기장에서는 려명팀과 리명수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도 있었다.

절세위인들의 영원불멸할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혁명적열의가 조국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10일 저녁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글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수도시민들

조선로동당창건 77돐경축 만수대예술단, 국립교향악단합동공연이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어머니를 사랑합니다》의 한 장면

김일성광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가 9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임에 따라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올해 농사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농업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하고 중요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당면한 가을걷이와 탈곡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시키며 량곡수매와 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량곡정책집행을 저애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 전원회의가 10월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대응법과 수매법, 식물새품종보호법, 집짐승종자관리법채택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대응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매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물새품종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집짐승종자관리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우리 인민의 존엄이고 영광인
람홍색공화국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기는 단순히 나라의 주권과 령토를 상징하는 기발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인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이고 기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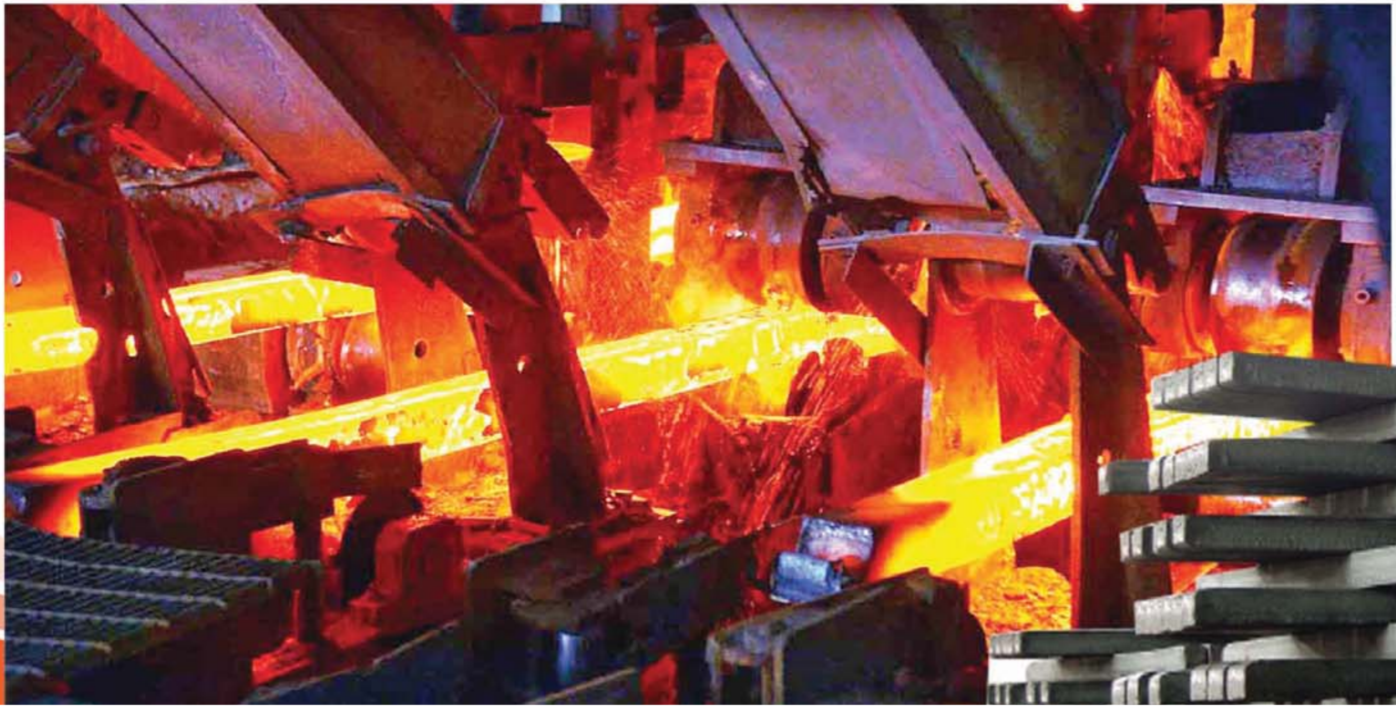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는것이 사회적흐름으로, 국풍으로 되고있다.

통일화보

온 나라에 나래치는 자력갱생정신, 계속혁신의 기상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롭게 꾸려진 대규모의 탄산소다생산공정.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 각오를 안고 과학자, 연구사들과 남흥의 로동계급은 기존생산공정을 통채로 들어내고 대화학기지의 체모에 어울리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우리식 탄산소다생산공정의 완성은 화학공업발전의 밝은 전도를 락관하게 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강화해나가는 투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련이어 창안도입하고있다.

강철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기로들에 산소미분탄취입기술을 받아들여 용해시간을 단축하고 쇠물의 질적지표보장에서 개선을 가져오고있다. 압연직장에서는 압연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함으로써 압연강재생산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고있다.

평양화력발전소에서 현존생산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설비들의 관리상태를 빠짐없이 료해하고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있으며 운영부문에서의 교대간 협동을 강화하고 보이라들의 연소효률을 끌어올려 호기당 출력을 제고하고있다.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늘인것을 비롯하여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배양, 육성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황해남도에 배려하여주신 농기계전달모임

황해남도의 전야에서 당의 은정어린 우리식의 농기계들이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5 500대의 새 농기계들이 황남땅에 도착한 때로부터 농장들의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뛰여오르고있다. 온 한해 당의 사랑이 물결쳐온 그 길로 애국의 옥백미, 보답의 열매를 산같이 실어보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전야마다에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공화국의 현실

성황리에 진행된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500여개 공장, 기업소에서 출품한 2 550여종에 133만여점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시기와 달리 식료품과 가정용품, 의복류, 신발류, 기능성 제품 등 같은 부류의 제품을 한전시구역에 집중적으로 전시하였다.

전시회기간 참관자들은 출품된 많은 제품들이 질이 좋을뿐 아니라 가격이 눅어진데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페막식에서는 우수하게 평가된 단위들과 제품들에 상장과 2월2일제품등록증이 수여되였다.

글 윤금철

꿈과 희망을 꽃피워주는 아이들의 궁전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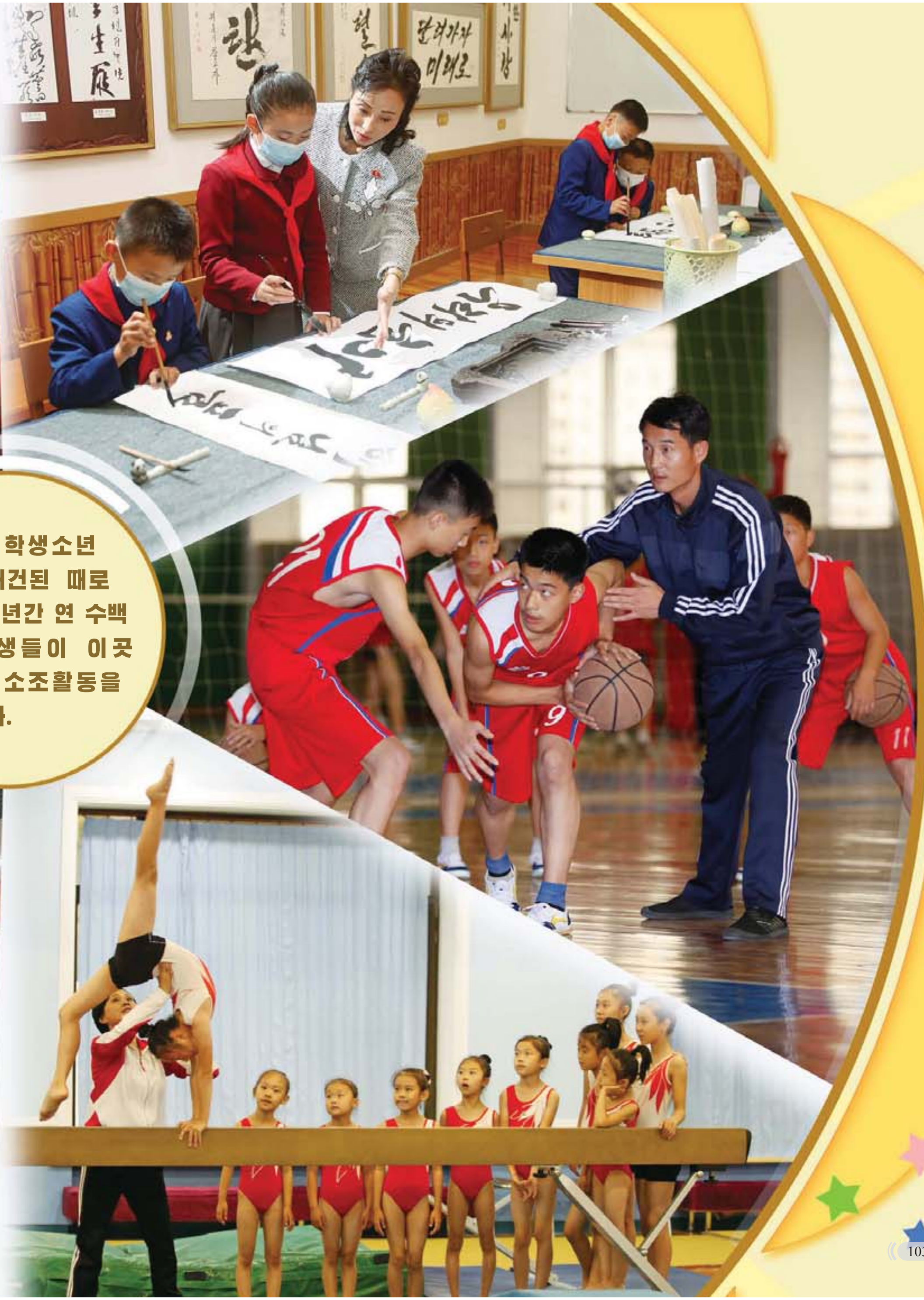
수도 평양의 광복거리에 자리잡고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이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주체78(1989)년에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104(2015)년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개건되였다.

콤퓨터소조, 서예소조, 가야금소조, 롱구소조 등 140여개의 각종 소조실들과 극장, 체육관, 수영관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어진 이곳에서는 소학교로부터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 이르는 각이한 년령의 학생소년들이 과외시간에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사진 리철영, 글 윤금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개건된 때로부터 지난 7년간 연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과외소조활동을 벌리였다.



힘과 지혜의 겨루기
전국민족씨름경기

제18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9월 1일과 2일 릉라도의 민족씨름경기장에서 있었다.

각 도(직할시)에서 선발된 13명의 선수들이 비교씨름으로 순위를 결정하였다.

지난해 제17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에서 우승한 강원도의 최위성선수는 이번 경기 8강자전참가자격을 가지였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4개 조로 나뉘여 조별련맹전과 추가경기를 진행하고 여기서 우수한 7명의 선수들이 다음단계에 진출하여 강원도선수와 함께 승자전의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었다.

경기장은 우리 민족의 자랑인 씨름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온 수많은 근로자들로 흥성이였다.

배지기, 호미걸이, 무릎치기 등의 다양한 기술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통쾌한 경기장면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속에서는 찬사와 박수갈채가 연방 터져올랐다.

이번 경기에서는 평양시의 송철민선수가 맞다드는 선수들을 이기고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강원도의 최위성선수, 자강도의 강성근선수가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경기가 끝난 후 순위권에 입선한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상장, 메달이 수여되였다.

글 본사기자

단풍계절에 평양골프장을 누비다

— 가을철골프애호가경기 —

태성호와 석천산의 자연경치가 잘 어울려 수려한 풍치를 자랑하는 평양골프장에서 10월 19일과 20일 가을철골프애호가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는 40여명의 선수들이 4개 부류로 나누어 승부를 결정하였으며 초보자들의 경기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복식경기와 수상골프오락경기도 있었다.

경기참가자들은 한해전 처음으로 이곳에서 진행된 골프애호가경기에 비해 몰라보게 발전한 자기들의 기술수준을 남김없이 펼쳐보이였다.

경기가 끝난 후 우승한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상장이 수여되고 시상이 있었다.

사진 김화명, 글 윤금철

락랑지구에 새로 건설된 락랑박물관

지난 9월 28일 공화국의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락랑박물관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였다.

평양의 락랑지구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 건설됨으로써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있는 락랑문화가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수 있는 교양거점이 마련되게 되였다.

특색있게 꾸려진 락랑박물관은 반만년의 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해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시려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수도의 근로자들이 애국의 마음을 안고 건설 전 기간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였으며 해당 부문과 련관단위들에서도 력사자료들을 과학적으로 론증하고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력사교양구와 민족놀이구, 휴식구 등으로 구성된 박물관이 손색없이 완공되게 되였다.

글 윤금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문익환목사로부터 선물을 받으시였다. 주체78(1989)년 3월

⇑⇓ 평양방문나날의 문익환선생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안은 남조선의 종교인

— 《전국민족민주운동련합》(《전민련》) 고문 문익환선생 —

문익환선생은 민족을 위한 정의의 길, 애국의 길에서 삶의 뚜렷한 자욱을 남긴 남조선종교인이다.

1918년 중국 화룡현에서 태여난 선생은 종교인이였던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 장로교목사가 되였지만 남조선의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나섰다.

수차례 감옥에도 투옥되고 진보적민주단체들을 결성하여 재야정치계의 원로로 알려졌던 선생의 인생행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고 최절정을 이루었다.

주체78(1989)년 신년사를 통해 문익환목사를 평양에 초청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차례나 선생과 마주앉아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폭로규탄하시면서 력사도 하나이고 민족도 단일민족이며 문자와 언어도 같은 우리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선생이 가슴속에 품고있던 여러 의문들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주시였으며 그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는 그의 신변안전을 두고 못내 걱정하시며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암흑속에서 헤매이다가 절세위인을 만나뵙고 애국애족의 위대한 리념에 매혹된 선생은 감옥에서도, 출옥후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평양에서는 조국해방 45돐을 맞는 주체79(1990)년 8월 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 정령이 발표되였다.

파란만장의 인생길에 태양의 빛발을 받아 값높은 삶의 단상에 오른 선생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애국투쟁에 심신을 다 바치였다.

글 윤금철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벌리고있는 문익환선생

인물소개

박사학위를 받은 녀성로동자

— 고려식료가공공장 로동자 최복순 —

최복순녀성은 고려식료가공공장에서 36년간 일해오며 수많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았다.

최복순녀성이 받은 발명증서와 창의고안증서들

최복순녀성은 고려식료가공공장에서 빵을 만드는 50대초엽의 평범한 로동자이다.

다섯남매의 넷째딸로 태여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였으나 한점 그늘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랐다.

그는 향학열이 높은 처녀였다. 비록 기술자는 아니여도 공장의 현대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꿈을 안고 탐구의 열정을 바쳐갔다.

누군가가 그를 찾으면 작업반원들은 롱삼아 집(공장도서실)에 가있다고 대답하군 하였다.

무거리나물콩으로 두부를 앗을수는 없을가? 밀가루반죽기계에 보조장치를 설치하면? …

이런 엉뚱한 사색을 거듭하는 과정에 그는 드디여 무거리나물콩으로 두부를 만들어볼 결심을 굳히고 연구에 달라붙었다. 초행길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끝끝내 해내고야말았다.

이렇게 발명의 첫걸음을 뗀 그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면서 보다 실리가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련이어 내놓아 종업원들을 놀래웠다.

공장에 첫발을 들여놓던 애송이처녀시절부터 이렇게 36년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 그는 발명증서를 비롯한 많은 창의고안관련증서들을 소유한 녀성발명가, 로동자박사로 성장하였다.

그는 오늘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식료품들의 질을 더욱 높이고 생산량을 보다 늘이기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해 탐구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사진 라춘송, 글 김유정

처녀시절부터 빵작업반에서 일하고있는 최복순녀성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작업반 기능공들과 함께

최복순녀성은 작업반원들과 자주 과학기술전당을 찾군 한다.

우표첩을 펼치고…

⇦ 앞날의 바이올린연주가로 자라나는 정경령학생

⇧ 조선우표박물관을 찾은 정경령학생 (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

⇦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 학업에 열중하는 정경령학생

조선우표

소녀우표수집가

—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학생 정경령 —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정경령학생에게는 류다른 취미가 있다. 우표수집이다.

그는 12살 나던 2019년에 개건된 조선우표박물관에 대한 참관을 계기로 우표에 남다른 흥미와 애착을 가지게 되였다.

력사교과서나 TV로만 보던 조선의 력사와 발전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자그마한 종이에 담고있는 우표는 볼수록 희한하게 느껴졌다.

(이 우표들을 모아놓으면 내 조국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력사책이 되지 않을가?)

경령이는 우표로 조국의 력사를 쓰고싶었다.

하여 집에 오는 편지들의 우표를 모두 떼내여 보관하는 한편 새 우표가 나오면 우표상점으로 선참 달려갔다. 동무들과 이웃의 어른들도 그의 마음이 기특해 건사했던 편지봉투들에서 우표를 찾아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3년동안 수집한 우표가 그에게는 수천점에 달하며 1946년부터 오늘까지 발행된 다양한 주제의 우표들이 년대별로 보관되여있는 우표첩만 해도 여러권이나 된다.

경령이는 오늘도 우표를 붙인다. 한장 또 한장…

15살의 나어린 우표수집가, 앞으로 그가 펴나가게 될 우표첩엔 몰라보게 변천되는 조국의 눈부신 발전상이 또 얼마나 비끼게 될것인가.

사진 라춘송, 글 김유정

남조선의 민심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침략전쟁연습 중단하라!》

지난 9월-10월에도 남조선에서는 미국과의 련합훈련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 다양한 투쟁들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경남평화회의》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경남반전평화행동》을 벌리며 미국의 핵동력항공모함의 부산항입항과 미국, 일본과의 련합훈련강행을 준절히 단죄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미국이 공공연히 《대북선제타격》 지어 《핵공격》을 운운하고있으며 윤석열역적패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같은 소리를 내뱉고있다고 폭로하면서 미국, 일본과의 전쟁연습을 중단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부산지역단체도 백운포앞에서 핵전쟁을 불러올 《확장억제정책》을 페기하며 미국전략자산을 동원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1인시위 등을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민중행동》은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핵동력항공모함의 부산항입항을 비롯하여 미국의 전략자산전개를 강력히 단죄규탄하였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과 미국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 등 정세긴장과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윤석열역적집단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강력히 단죄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결의를 밝혔다.

글 본사기자

낸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555ㄷ

루계 412

ISSN2305 8544
9 772305 854008